

환율 나홀로 폭등... 외환시장 패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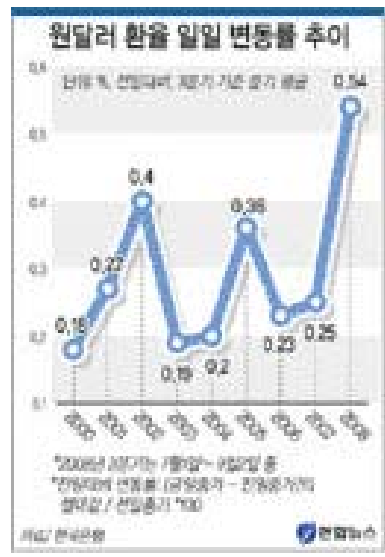
정부 고강도 개입... 전방위 방어 나서

외환당국 '위기설' 진화... 20억달러 긴급 투입

전문가들 "1200원 간다" "급반락 가능" 엇갈려

원·달러 환율이 4일 동안 70원 가량 폭등하면서 외환시장이 패닉(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지고 있다. 정부는 3일 2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풀어 환율방어에 나섰다...

의 실태 방어를 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9월 들어 급등하고 있는 환율이 이른바 '9월 위기설'과 맞물리면서 패닉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당국으로 하여금 '중요호랑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시장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어 강력한 '행동'으로 나섰다...



시 매도세도 약화되지 않는다면 외환수급상황은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9월 위기설의 발단이 된 국고채의 만기가 오는 10일을 전후한 시기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이날 중순부터는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2억짜리 모피... 한번 입어 봐? 3일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찾은 고객들이 2억원대 최고급 모피를 구경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모피는 제니 퍼(genny fur)의 제품 중 하나로 렉스(스라스나) 소재로 만들어져 스라스나 특유의 반점이 특징이다.

車업계 파업·잔업 거부 여파

8월 생산·내수·수출 동반 하락

24만대 생산 전년동기비 16% 감소

자동차 업계는 지난 8월 주요 업체들의 부분파업 및 잔업 거부 등으로 생산과 내수, 수출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량은 작년 같은 달보다 16.2% 줄어든 24만3천

143대를 기록했고 올해 1~8월 생산량도 작년 동기 대비 2.6% 감소한 257만8천956대였다. 지난달 내수 판매량은 부분파업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작년 8월보다 18.7% 감소한 8만911대였고 수출량의 경우 16만3천454대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6.

7% 떨어졌다. 내수시장에서 경차 판매는 작년 8월보다 37.8% 증가했으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소형차, 대형차, 중형차는 각각 33.9%, 17.3%, 15.5%, 3.0%씩 판매량이 줄었다. LPG가격이 휘발유 가격 대비 60% 수준까지 높아지면서 연료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자 지난달 미니밴(CDV) 판매도 작년 8월에 비해 42.1%나 떨어졌다. 모델별 내수판매 순위는 지난달 한달만 보면 쏘나타가 1위, SM5와 아반떼가 각각 2·3위였고 올해 1~8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쏘나타, 아반떼, 뉴모닝 순이었다.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6 columns: Job Title, Department, Salary/Requirements, Company Name, Start Date, and Contact Info. Includes various job openings from Recruiters like '062.JOBKOREA.CO.KR'.

신 차관보다 "채권 만기가 허구라는 게 밝혀지면 시장이 상당히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200원 간다" vs "급반락 가능"> =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불안심리가 지속될 수 있어 환율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조그마한 상승재료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1,200원 부근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세계적인 주가 하락에 따른 투신권의 해외투자분 청산과 관련한 달러화 수요와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에 따른 은행의 선물환 거래 관련 외화 차입난 등이 불안심리를 가중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대부업체 이자율 최고 49%로 제한 5년 더 연장기로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에 대한 규제가 5년 연장된다. 또 광고에 이자율과 같은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표기해야 하며 관할 시·도에 업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대부업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대부업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 시한이 올해 말에서 2013년 말로 연장되고 연말로 끝나는 시·도의 대부업체 검사 권한이 시한에 관계없이 주어진다. 현재 대부업체 이자율은 법에서 연 60% 이내, 시행령에서 연 49%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체가 고객으로부터 선 이자료를 받았을 경우 원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원금에서 제외된다.



농촌사랑상품권 첫선 농협은 3일 조선 최초의 여성 CEO인 '의녀 김민덕'의 초상을 넣어 제작한 농촌사랑상품권을 선보였다.

유가, 100弗 아래로 떨어지나

WTI 배럴당 109.71달러... 7월 보다 40달러 하락

7월초만 해도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했던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제는 100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멕시코만에 밀집한 미국의 석유시설이 허리케인 구스타프로 인한 큰 피해는 면한 것으로 보이면서 국제유가가 4월 초 이후 5개월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에 무게가 두어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지난주 증가보다 5.75달러(5%) 하락한 배럴당 109.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는 개장 전 전자거래에서는 배럴당 105.46달러까지 폭락하기도 해 7월에 배럴당 147달러에 이르렀던 때와 비교하면 40달러 이상 내린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0달러 가까이 폭락했다. 3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9.99달러 떨어진 101.6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두바이유 낙폭은 사상 최대이며 4월9일 배럴당 99.63달러를 기록한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뉴욕상업거래소(NYMEX)나 런던 석유거래소(ICE)의 선물 시장을 하루 늦게 반영하기 때문에 3일 거래에서는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IMF "한국경제 패닉 우려 없다"

2,400억 달러 외환보유... 외환 위기때와 다르다

삼성도 "9월 위기설 문제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외환보유고가 충분히 한국경제가 패닉(공황)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3일 보도했다. IMF 매달 카라솔루 주한 대표는 이날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외부충격에 대처하기에 무리가 없다. 과거 외환위기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최근 한달새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10% 이상 급락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 한국경제는 튼튼해졌고 금융감독도 잘 이뤄지

고 있다. 시장에 나도는 소문들은 과장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금융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최근 원화 약세를 방어하고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세계 6위 규모인 2천400억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삼성그룹은 3일 사장단회의에서 9월 경제 위기설을 점검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그룹 사장단협의회는 이날 수요 정기 회의에서 현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9월 위기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결과 위기설은 과장됐으며 경제위기와 같은 큰 문제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락장선 쉬는 것도 재테크?

8월 광주·전남 주식 거래량 30% 급감... 거래대금도 8천억 줄어

증시 금락의 여파로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주식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량과 대금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량은 3억9천118만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인 7월에 비해 29.4%(1억6천320만주) 감소한 것으로, 지난달 국내 증시 금락으로 인해 지역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특히 지난달 광주·전남의 주식거래 대금은 1조6천740억원으로, 한 달새 33.2%(8천319억원)나 급감할 만큼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됐다. 실제 지난달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미국 금융시장 불안 및 중국 증시 악화 등으로 인해 한 달새 각각 7.55%(120.43P), 12.82%(69.16P) 떨어졌다. 광주·전남은 또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

도 6월보다 낮아졌다. 지난달 광주·전남 투자자들이 전체 거래량과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64%, 1.40%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보다 각각 0.02%P, 0.07%P 떨어진 것으로, ▲부산·경남(3.23%, 2.63%) ▲대구·경북(2.67%, 3.57%) ▲대전·충남(1.76%, 1.50%) 등을 밑돌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광주·전남 투자자들의 거래 상위 5종목은 코스피의 경우 STX팬오션, 유진투자증권, 금호종금, 한신기계, 대우부품 등의 순이었다. 코스닥은 하이셀, 에이하이, 네오솔라, 한국토지신타, 큐리어스 등의 거래량이 많았다. 거래대금은 코스피의 경우 포스코, 현대중공업, STX팬오션, LG전자, 하이닉스 등이 상위 5종목에 포함됐다. 코스닥은 에이하이, 모멘트, 미러넷, 액티비스, 한국오일 등이었다.

주식형펀드 자산총액 114조

전날보다 2조8천억 ↓... 11개월만에 최저치 기록

연일 금락장세가 이어지면서 주식형펀드의 순자산총액이 11개월 만의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다. 3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주식형펀드의 순자산총액은 1일 기준 전달보다 2조8천700억원 줄었다. 전체 펀드 순자산총액은 지난 4월1일(324조4천715억원)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식형펀드를 비롯한 펀드 자산이 이처럼 급감한 것은 코스피지수 1,400선이 붕괴되는 등 주가 낙폭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들어 증시의 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저가 매수성 자금이 펀드로 유입되면서 지난 5월 19일 주식형펀드의 순자산총액은 143조8천143억원, 전체 펀드는 362조1천701억원까지 늘면서 정점을 형성한 뒤 감소세로 전환했다. 현재 주식형펀드와 전체 펀드의 순자산총액은 최고치 대비 각각 20%와 10% 줄어든 상태다. 한편 주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주식형펀드로의 자금 유입도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1일 기준 1천262억원이 들어오고 1천383억원이 빠져나가 120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해 8거래일 만에 순유출로 돌아섰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312억원이 유입되고 704억원이 유출돼 392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하며 4거래일째 순유출을 지속했다.